

수출 30년의 회고와 평가

이영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經博)

전민규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이보성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 수출 30년의 회고

우리 나라는 1960년대 賦存 資源의 빈약과 국내 시장의 협소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후 수출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950년대의 우리나라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본격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에 접어든 것은 수출의 날이 제정된 1964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30년간의 수출을 회고하는 것은 濫故而之新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그 특징에 따라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의 기반 조성기, 급속한 수출 증대가 있었던 양적 팽창기, 수출 상품 구조가 중화학공업 제품 중심으로 고도화되기 시작한 질적 성장기, 그리고 최근의 구조 조정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시기별로 특징 및 주요 사건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반 조성기(1964~1968)

이 기간은 정부에 의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계기로 수출의 날을 제정하였고, 1965년 10월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수출 진흥 회의를 주재하여 수출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1967년 1월에는 무역거래법을 제정하여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1967년 7월에는 수입 제도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입의 급증을 막기 위하여 이듬해인 1968년에 수입 담보금 적립제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중에 수출 증가율은 달러 표시 경상가격 기준으로 연 평균 39%씩 증가하여 다음에 올 양적 팽창기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양적 팽창기(1969~1976)

이 기간은 장기적인 수출 증대 계획을 통하여 수출이 급속히 팽창한 시기이다. 1969년에는 수출 증대를 위한 굵직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수출진흥특별회계 설치, 한국수출진흥공사 설립,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마산 및 이리 수출자유지역 설치 등이다. 1971년에는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 이후 수출이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걸린 기간이 6년에 불과,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중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4%를 넘었으며 특히 1973년에는 수출이 그 전년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수출이 급신장세를 보이자 정부는 질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수출 산업을 중점 개발 산업, 안정 산업, 원료 산업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지원책을 달리하였으며 수출 특화 산업 품목의 세계 제일주의 운동같은 품질 향상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질적 성장기(1977~1988)

이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중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처음으로 경공업 제품의 비중을 넘어서면서 수출 상품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역 의존도는 기간 평균 63.4%에 달해 교역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 평균 수출 증가율은 양적 팽창기의 44%보다는 많이 낮아져서 19.2%를 기록하였다.

<표 1> 수출 상품 구조 변화 추이

(%)

	1次 產品	경공업	중화학 공업
1962	73.0	20.0	7.0
1970	16.4	72.9	10.7
1980	7.7	48.4	43.9
1985	5.2	37.7	57.0

자료: 한국은행,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4

한편 오랫동안 국제 수지 적자에 시달려 온 우리나라 경제는 1977년 처음으로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986년부터 4년간은 무역 수지 흑자라는 숙원을 풀기도 하였다. 1986년부터 시작된 무역 수지 흑자는 1988년에 이르러 88.9억 달러에 달해 흑자 기조가 정착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 때의 무역 수지 흑자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라는 소위 '3低 效果'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이후 이 효과가 소멸되면서 다시 적자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자 정부는 1980년대 중반까지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수출의 극대화 정책을 지양하고 수출 지원 축소와 수입 자유화의 적극적인 추진 등 국제 수지 흑자 축소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수출 지원 축소책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수출 설비 자금 지원을 폐지(1987.6), 개별 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 제

도 폐지(1988.2), 관세 징수 유예 제도 폐지(1988.10) 등이 있다.

구조 조정기(1989~1994)

1989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2.8%의 증가라는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의 저조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1991년 10.5%, 1994년의 17.1% 증가를 제외하고는 계속 한 자리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은 1989년부터 앞의 두 시기와는 달리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질렀다. 또한 이 기간중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처음으로 GNP 증가율보다도 낮아졌으며, 그 영향으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기간 평균 53.8%를 기록하였다.

1989년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199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다시 적자 상태로 반전되었다. 이 여파로 1988년에 세계 총수출의 2.25%까지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1990년 들어 다시 1.95%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였다. 수출 유망 상품의 일류화 사업, 해외 시장 개척 자금 조성, 수출 보험공사 설립, 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의 한시적 부활 등의 조치가 1991년에 행해졌다.

1994년에 이르러 수출 상품 중 중화학 공

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가까이 이르게 되었으며 반도체가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표 2> 수출 상품 구조 변화 추이

	1차 產品	경공업	중화학 공업
1989	5.43	39.28	55.29
1990	4.49	38.54	56.47
1991	4.63	35.46	59.91
1992	4.28	32.96	62.76
1993	3.90	30.00	66.10
1994	3.91	27.83	66.18

자료 : KOTIS

한편 1989~1991년 사이의 수출은 무역수지 흑자 시기였던 1986~1988년 사이의 수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무역수지 흑자기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대체로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높았다. 수입 증

<표 3> 수출 증가율 비교(韓·日·臺)

		한국	일본	대만
1986	수출	14.6	19.0	29.8
	수입	1.4	-2.2	20.4
1987	수출	36.2	9.7	35.1
	수입	29.9	18.4	44.8
1988	수출	28.4	14.5	12.6
	수입	26.3	24.1	41.9
1989	수출	2.8	3.4	9.3
	수입	18.6	11.9	5.4
1990	수출	4.2	5.0	1.3
	수입	13.6	12.2	4.3
1991	수출	10.3	9.5	13.5
	수입	16.7	0.7	15.2

가율도 일본보다는 높았지만 대만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수직 하강하였으며 수입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89년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것은 1986~1988 기간중 선진국 경기가 부진했고, 정부는 성급한 흑자 관리 대책을 시행하였는가 하면, 기업들은 3低 효과에 안주하고 투자를 게을리한 측면이 간과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임금 상승폭과 금리 등이 경쟁국들에 비해 높아서 가격 경쟁력면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졌기 때문이다.

특히 명목 임금 상승률은 1987년 이후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1991년 사이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표 4> 각국의 명목임금 상승률 비교

(%)

	한국	일본	대만
86~88	13.4	2.5	10.3
89~91	20.7	4.8	13.2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수출과 국제경쟁력 현황」, 1992. 5.

이러한 급격한 임금 상승에 의한 비용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하락하였다.

또한 금융 비용을 나타내는 금리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들이 비해 불리

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고금리 구조는 기업들에게 큰 금융 비용을 안겨 줌으로써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출과 한국 경제

수출과 경제 성장

1960년대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개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기업의 수출에 대한 의욕을 바탕으로 수출이 단기간에 급신장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수출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8.5%라는 고도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중 수출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 직접적인 기여도¹⁾는 약 2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²⁾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GN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차 상승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 1) 성장기여도 = (GNP 부문별 증가분 - 부문별 수입유발 증가분) / GNP 증가분.
 부문별 수입유발액은 1964년~1979년은 1975년의 산업연관표, 1980년~1984년은 1980년의 산업연관표, 1985년~1989년은 1985년의 산업연관표, 1990년~1994년은 1990년의 산업연관표상의 수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2) 일본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16.7%에 달했던 70년대에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수출 비중이 4.1%이던 기반 조성기에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1%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양적 팽창기와 질적 성장기를 거쳐 성장 기여도는 33.2%로 높아졌다.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이 크게 부진했던 구조 조정기에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23.4%로 크게 낮아졌으나, 1992년 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 기여도는 40%를 넘어섰다.

<표 5>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

	경제 성장	수출 비중	성장기여도		
			수출	소비	투자
기반조성기	9.2	4.1	9.1	73.3	17.6
양적팽창기	8.6	14.2	26.0	64.3	9.7
질적성장기	8.3	27.8	33.2	54.8	12.0
구조조정기	7.3	32.3	23.4	52.9	23.7
전 체	8.5	21.1	25.2	58.6	16.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4
——, 산업연관표, 각호

그러나 수출이 경제 성장에 미친 효과는 위에서 계산한 직접적인 기여분에 그치지 않는다. 수출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를 초래하며, 소득의 증가를 통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³⁾ 이러한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수출의 총기여도를 계산하는 경우, 64년 이후 수출의 연평균 기여도는 50%를 넘

어서며, 질적 성장기에는 67.8%에 달하고 있다.

수출은 고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표 6>은 1980년, 1985년, 1990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총취업자 중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용 인원을 계산한 표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 수출에 의해 유발된 고용 인원은 약 34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6%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제조업에서의 고용 유발 인원은 240만 명으로 전체 고용 유발 인원의 69.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 및 가죽 산업의 고용 유발 인원이 제조업 전체의 4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전기·전자(14.9%), 화학제품(9.3%), 일반기계(5.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

(단위: 백만 명, %)

	총취업자 (A)	수출의 고용유발 인원 (B)	B/A
1980년	12.3	2.3	18.6
1985년	13.1	2.8	21.6
1990년	15.9	3.4	21.6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수출과 산업

우리나라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은 1970년대까지는 경공업 제품에 의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 공업 제품에 의해서 주도

3) 이를 수출의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64년~93년의 한계소비성향(0.63)과 한계세율(0.19)을 감안하여 계산한 단순한 형태의 수출 승수는 약 2.04이다.

되었다. 지난 30년간의 기간별 주종 수출 상품을 보면, 1960년대 중반까지는 철광석, 중석 같은 광산품과 오징어나 활선어 등의 수산물에 주류를 이루다가, 1970년대로 넘어서면서 섬유, 합판, 가발, 신발과 같은 경공업 제품들이 주요 수출 상품으로 떠올랐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난 1970년대 말부터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980년도에는 전자가 1985년도에는 선박이 수출 품목 2위로 올라서면서 1위인 섬유와의 격차를 점차 좁혀 놓았고, 마침내 1990년에는 전기·전자 제품이 20년 이상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섬유를 제치고 1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수출 구조의 변화는 국내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화학 공업의 수출 비중은 1962년의 25.9%에서 1993년의 68.8%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산업 구조 역시 중화학 공업 비중이 동기중 28.6%에서 71.5%로 수출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표 7> 수출과 산업 구조 변화 추이

	수출구조				산업구조			
	수출구조		산업구조		수출구조		산업구조	
	중화학	경공업	중화학	경공업	중화학	경공업	중화학	경공업
1962	25.9	74.1	28.6	71.4	25.9	74.1	28.6	71.4
1970	38.4	61.6	39.2	60.8	38.4	61.6	39.2	60.8
1980	47.6	52.4	53.6	46.4	47.6	52.4	53.6	46.4
1990	59.5	40.5	65.9	34.1	59.5	40.5	65.9	34.1
1993	68.8	31.2	71.5	28.5	68.8	31.2	71.5	28.5

자료: 한국은행,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4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호

수출과 산업별 성장과의 관계는 산업별 생산 증가율과 산업별 수출 증가율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제조업 부문의 산업별 생산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의 상관 계수는 0.52로서 두 부문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동기간 중 생산 증가율이 높았던 산업은 금속 제품(24.0%), 수송 기계(22.7%), 전기·전자(21.6%), 일반 기계(21.3%) 등인데, 이들 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모두 20%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표 8> 산업별 수출 비율

	한국		일본
	75	90	80
전산업	12.5	12.7	6.2
제조업	15.8	20.4	15.8
음식료품	5.2	4.0	1.2
섬유 및 가죽	36.3	47.0	11.8
종이·나무	21.0	6.5	1.6
화학제품	5.3	13.4	9.0
석유·석탄	5.1	9.6	2.0
요업토석	26.2	5.4	5.8
1차금속	10.5	13.5	11.2
금속제품	25.1	22.6	9.4
일반기계	5.9	19.2	17.5
전기·전자	25.5	39.3	21.7
정밀기계	27.7	32.2	29.0
수송기계	11.7	15.0	32.5
기타제조업	57.8	26.8	5.4

주: 수출비율 = 수출액 / 생산액

<표 8>은 산업별 수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중화학 공업 부문에서의 수출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9>는 각 산업별로 수출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산업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는 수출의 생산 유발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수출의 생산 유발 계수는 1975년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수출을 통한 산업간의 전후방 관련 효과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1980년)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계수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산업별 생산 유발 계수

	한국		일본
	75년	90년	80년
전산업	1.81	1.99	2.39
제조업	1.69	1.82	2.15
음식료품	1.51	2.57	2.07
섬유 및 가죽	1.48	1.53	1.89
종이·나무	1.65	4.02	6.41
화학제품	3.93	2.89	2.54
석유·석탄	5.09	3.34	9.53
요업토석	1.22	3.36	2.14
1차금속	2.81	3.34	3.64
금속제품	1.34	1.45	1.72
일반기계	1.40	1.44	1.77
전기·전자	1.15	1.32	1.53
정밀기계	1.07	1.37	1.47
수송기계	1.25	1.48	1.27
기타제조업	1.04	1.37	2.89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수출 증대의 문제점

수출의 급팽창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

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수출 산업에 대한 편중된 정책 지원은 내수 산업의 상대적인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자원 배분과 산업 구조의 왜곡을 가져 왔으며, 수출 우선 주의는 제조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 구조와 경제의 2중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출의 양적 극대화 정책이 초래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조립 가공 형태라는 수출 구조와 경기의 수출 의존도 심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조립 가공 형태의 수출 구조는 수출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지 못하고 자본재, 중간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0>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최종 수요 항목별 수입 유발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의 수입 유발 계수는 소비와 투자의 수입 유발 계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수출재의 생산이 소비재나 자본재에 비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증가 효과의 상당 부분이 수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

<표 10> 최종 수요 항목별 수입 유발 계수

	수출	소비	투자
1970	0.26	0.13	0.39
1975	0.36	0.19	0.48
1980	0.38	0.23	0.42
1985	0.37	0.19	0.34
1990	0.33	0.18	0.28
일본(80)	0.17	0.12	0.1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일본행정관리청, 昭和 55년 산업연관표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1980년)의 경우도 수출의 수입 유발 계수가 타부문의 수입 유발 계수 보다 높으나, 유발 계수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한 0.17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높은 수입 유발 계수로 인해 우리나라(1990년)의 외화 가득률은 67.1%로 일본(1988)의 91.3%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경기의 수출 의존도 심화는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0년 이후 경기 변동의 대부분은 수출 변화를 통해서 야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은 선진 각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변동성이 높은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⁴⁾

■ 무역 환경의 변화와 대책

대내외 환경 변화

2차 대전 후 줄곧 미국이 주도해 오던 세계 경제는 1970년대 들어 일본과 유럽이 미국과 동등한 경쟁 관계로 발전하여 다극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중국을 비

롯한 아세안, 중남미국가 등 후발 개도국도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지난 1986년 이후 7년간 끌어 온 UR이 1994년 초 마라케쉬 각료회의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1995년부터는 WTO 체제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각국의 투자 및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자본, 서비스, 기술,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어 오던 각종 보조금 등 경쟁 저해 조치가 엄격히 규제됨으로써 세계 경제는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는 WTO 체제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북미의 NAFTA, 유럽의 EU와 같은 경제 블록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APEC, 아세안,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華南 경제권, 중남미 경제권 등이 태동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 블록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심화는 역외 국가에 대해 배타적인 무역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역내 무역의 활성화와 세계 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6년에 선진국의 경제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4) 1970년 1/4분기부터 93년 2/4분기까지의 GNP 자료를 통해 분석한 부문별 변동성은 소비 1.73, 투자 9.50, 수출 10.41로 나타나고 있다. (李寧洙, '불경기 왜 오래 지속되나', 월간 기업경제 93.9 참조)

<그림 1> WTO 출범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변화	영향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 경쟁력 우위 산업의 신규 수출 수요 확대 · 경쟁력 열위 산업의 해외 시장 잠식
불공정무역 제제 기준 마련	· 반덤핑 관세 산정기준 명료화 · 덤핑 관세 부과 억제로 대선진국 수출 확대
수출지원제도 축소	· 중소기업의 자금난 → 가격 경쟁력 약화
무역 관련 투자 자유화	·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 첨단기술 도입/ 기술경쟁력 향상
분쟁해결기구 신설	· 대선진국 수출 환경 개선, 반면 우리나라 수출 지원 제도의 제소 가능성 확대
환경라운드(GR) 본격화	· 환경관련 산업의 수출 산업화 · 환경보호 비용 상승 → 가격 경쟁력 약화

각종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여 온 일부 금융 세제상의 지원 조치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각국에서 한국 기업에게 주었던 저관세율, 쿼터 특별 배정 등의 혜택도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왔던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특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유럽공동체(EU)가 내년부터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 수혜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연방의회도

WTO 이행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정부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선진국에서와 같이 3년내에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의 세찬 추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리 경제가 고임금, 고금리, 환율의 불안정,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과 수출이 부진했을 때, 이들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 저자본 비용, 환율의 안정 등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의 신장으로 수출 신장과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

<표 11> 각국의 주요 경제 지표

경제지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실질경제성장률('89~'93 평균, %)	6.4	8.7	8.8
수출증가율('90~'92평균, %)	8.6	15.9	16.5
환율변동률('88~'93 평균, %)	21.0	2.0	3.0
월평균 임금수준('93, 제조업, 달러)	1,103.0	186.3	480.0
실질단기이자율('93 평균, %)	6.0	3.3	0.5

다. 이들 국가의 비교 우위가 자원 중심에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하면서 우리나라와 중복되는 분야에서의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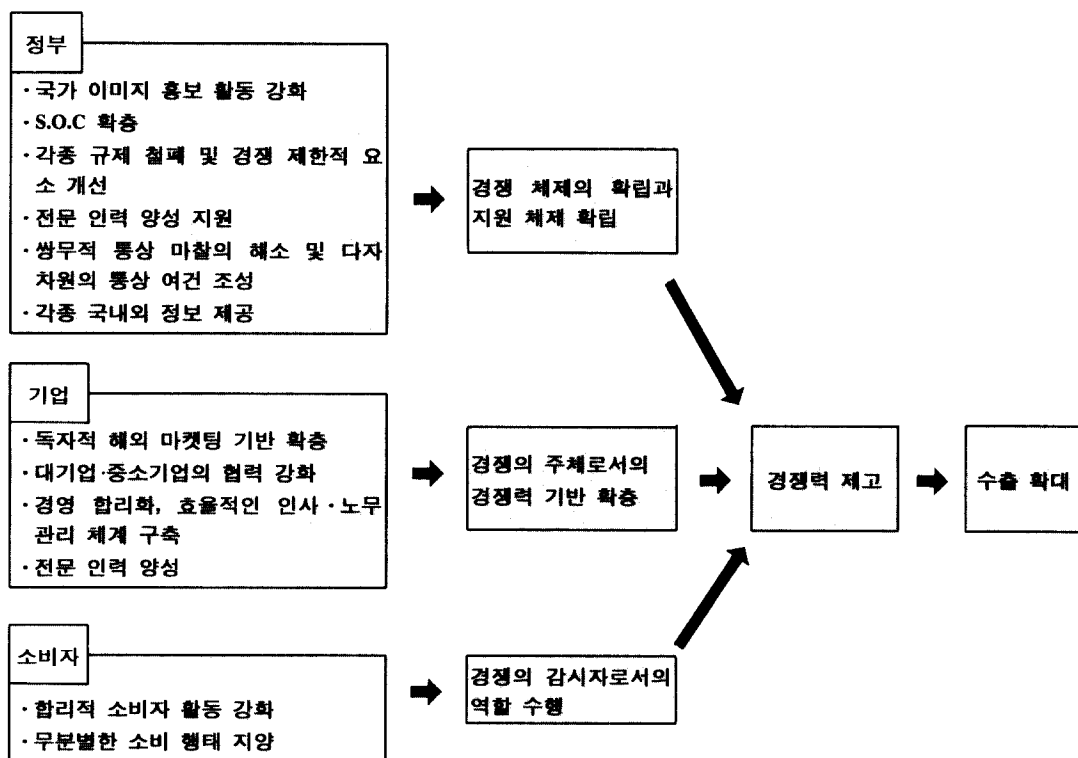
UR의 종료와 함께 환경라운드(GR), 노동라운드(BR), 경쟁라운드(CR), 기술라운드(TR), 투자라운드(IR) 등 새로운 다자간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각각 환경 보호, 노동권 보호, 국내 경쟁 조건의 평등화, 기술 개발 지원 조건의 국가간 조화, 자유로운 투자 환경 보장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경쟁력 확보를 제한하

기 위한 의도에서 잇슈화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응책

새로운 대내외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한히 열려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늘려가는 길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금리 등 요소 비용의 안정과 기술 혁신, 왕성한 설비 투자 등

<그림 2> 각 경제 주체의 역할



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각 경제 주체의 의식 변화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자유로운 경쟁 체제의 기반을 확립하고 무한 경쟁 시대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수출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경쟁 제한적 요소는 개선되어야 하며 국내의 무역 관련 정책 및 제도는 경쟁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철도, 항만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 현상도 해소되어야 한다. WTO의 출범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 보조 정책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화 감각을 가진 무역 전문인력의 양성에 힘쓰고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적 투자 지역의 선정과 업종 선정을 위한 조사 업무를 추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가 이미지의 개선, 쌍무적 통상 마찰의 해소 및 다자 차원의 통상 여건 조성, 국제간 산업 기술 협력 추진 등을 위한 해외 통상 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

기업은 세계화와 현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래의 바이어 의존적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독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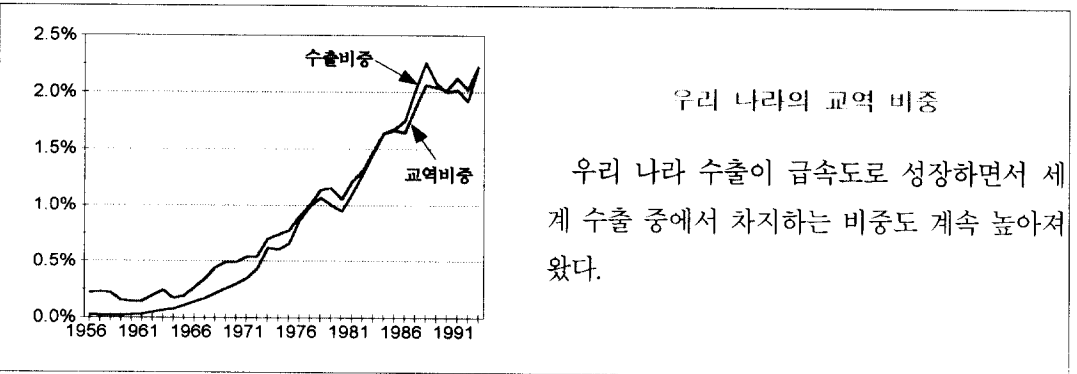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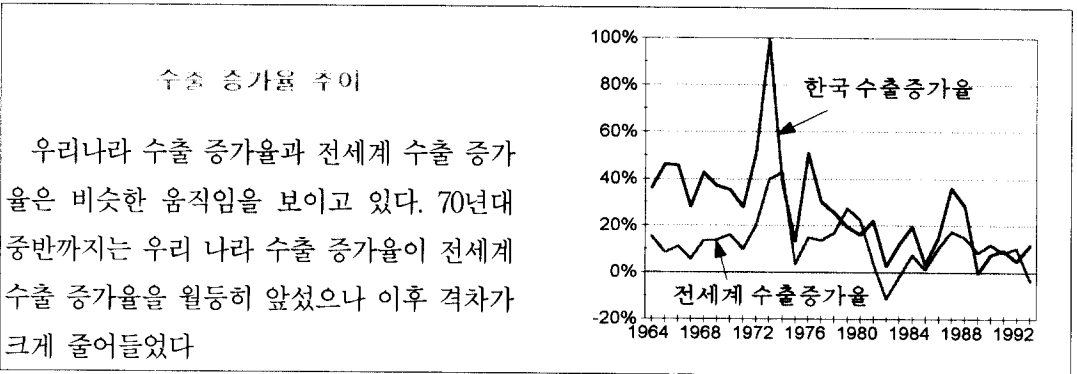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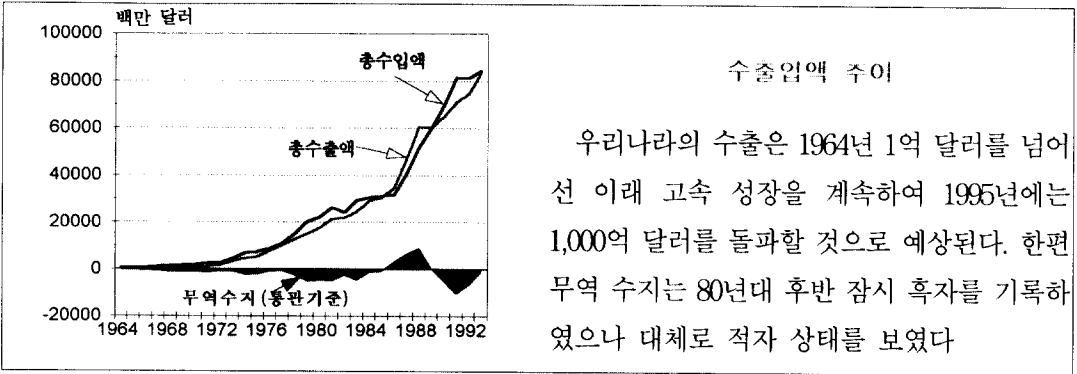
인 마케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세계화에 대응한 경영 이념의 정립과 경영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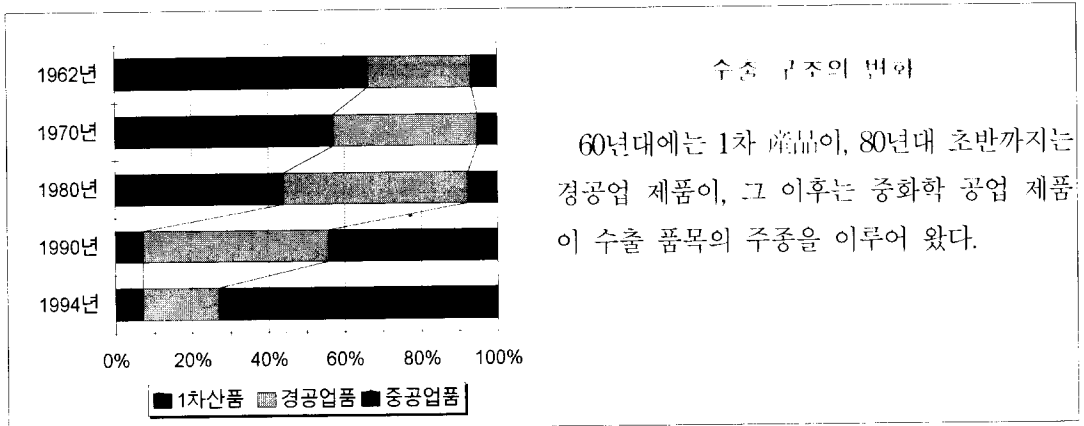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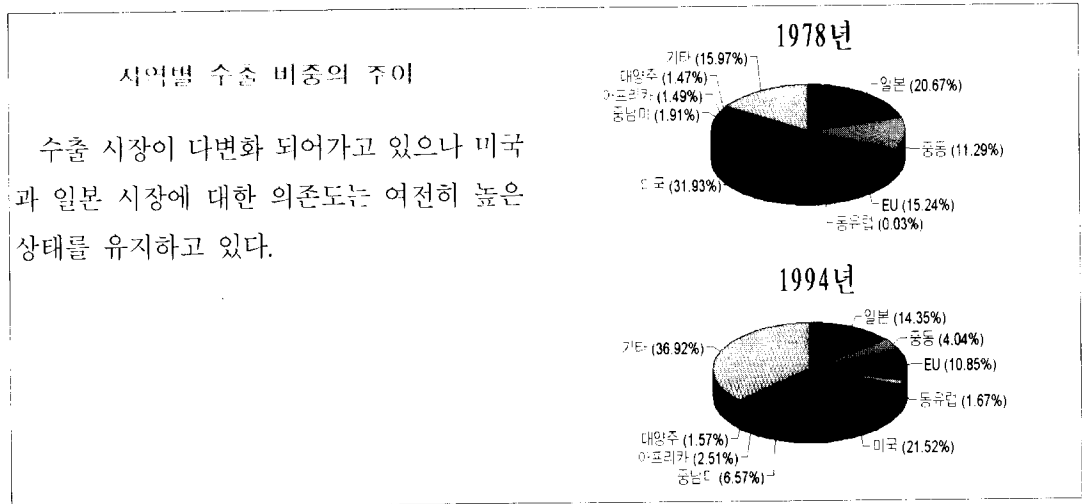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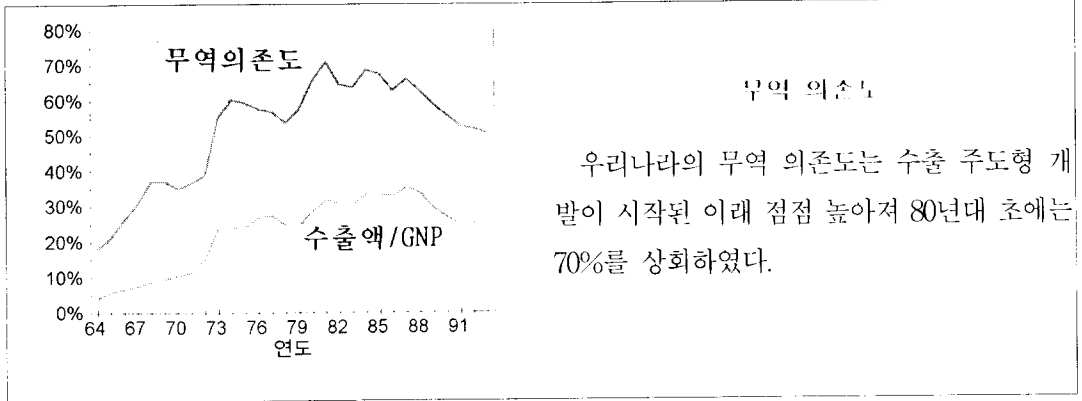
또한 기업은 성장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인력 양성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종래의 팽창주의적인 양적 경영에서 벗어나 밖으로 세계 소비자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고 안으로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도모하는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시기에는 소비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더욱 중요해지고 그것이 수출입의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밀려오게 될 외제 사치품의 소비를 줄이는 성숙한 소비자로서의 자세 확립이 요구되며 합리적인 소비자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상품의 부당한 유통이나 불공정 영업 행위를 감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 경제 주체들이 무한 경쟁의 주체와 지원자 그리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때 우리의 수출은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추진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으로 본 수출 30년 -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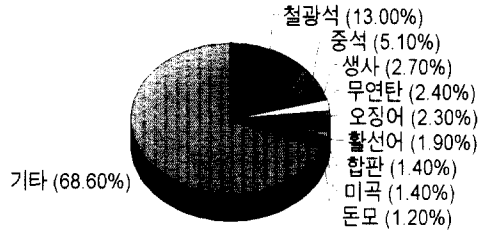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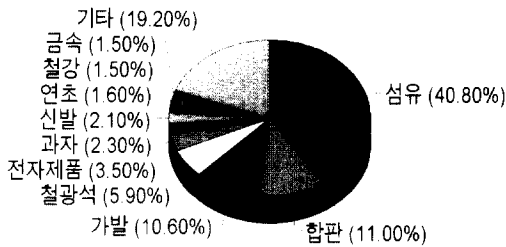
1990년 수출 품목의 변화

1990년에 20여년 동안 줄곧 1위를 지켜오던 섬유를 제치고 전자·전기가 1위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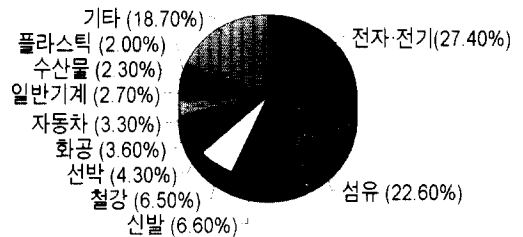
19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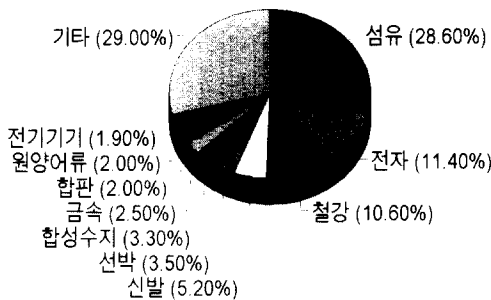
1970년



1990년



1980년



1994년

